

성도의 벗 4



영감의 멧세지

스펜서 더블유. 킴블

(12사도정원회)

현대의 사람들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적은 무리의 사람들에게만 계시를 통하여 훌륭한 말씀을 주시고, 만일 그들이 그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늘 문을 닫으시리라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절박한 때에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레위기 26 : 19)

만일 성경이 “예언의 끝”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탓일 것이며, 그런 까닭으로 하늘은 때때로 닫히고 잠겨져서 철과 같이 되고 땅은 놋과 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강제하시지는 않으시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시련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 나름의 제한된 생각이나 해석에 만족해 한다면, 물론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택한 운명에 처하도록 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어제, 오늘도 또한 영원히 똑같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가는 계시의 풍부함과 그 정도에 따라 인간의 믿음과 영적인 힘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공보부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68년 4월 1일 통권 제33호

발행인 : 배 일 문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T. S. D.)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전화 ㉓ 3995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제 4 권 제 4 호

순 서

1968년 4월호

권두언 :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부활 스타링 더블유. 쉘.....	3
마음을 다하여 아이다 엠. 바칸	6
관리 감독단 페이지 : 우리의 목표	10
상호 부조회 : 가족과 부활 로이 더블유. 록시.....	12
주일학교 : 헬렌 브레이크 스미스.....	15
청소년편 : 아름다운 감흥 이반 제이. 바렛	18
상호 향상회	21
계보 :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풀리게 되리라.....	23
선교부장 멧세지 배일문.....	25
새소식.....	26
진리의 말씀 : 어느 것이 어려운 것인가? 리차드 엘. 이반스.....	표지

이달의 표지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느끼게 하는 달입니다. 여러분께 아름다운 자연을 드립니다.

어린이 차지 : 구두속의 비밀, 강아지 파피, 라몬과 암탉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 들이지 않고서는 부활—우리는 부활절의 행사를 갖습니다—을 받아 들이기도 힘들고 강한 믿음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속에는 인간은 불멸한다고 하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이 세상의 모두를 경험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도 이 세상의 모두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행복을 맛보았고,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셨습니다. 그는 우정을 아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같이, 죽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사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영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 19 : 25)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살아계신 구속자를 간증할 수 있는 분은 자기의 영을 영원한 진리에 두신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죽음의 문을 지나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우리의 구속주, 그리스도의 멧세지는 많은 멧세지중에서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지상생활이 그에게는 하루에 지나지 않았고, 그 종말이란 인생의 해가 지는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의 잠에 불과한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찬란한 아침에 깨어나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동생이 어둡고 쓸쓸한 무덤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 께서는 아직도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는 두마디 말로 표현하셨음

죽음을 두려워 할 까닭은 없습니다. 그것은 생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니다.

만일 부활절 의식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신 후에, 무덤에서부터 사흘 만에 실제로 일어나셨고, 그의 영은 그의 찢긴 몸에서 다시 사셨으며, 사십일동안 사람들과 거하신 후에, 마침내 아버지께 영화로운 몸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의심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안을 얻겠습니까?

인간 불멸성에 관한 지식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가 무덤에서 일어나 그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영생을 여러가지 면으로 강하게 뒷받침 해 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할 까닭은 없습니다. 그것은 생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탄생과 같이 자연스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 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이란 생명의 종말이며, 생명만이 우리가 지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 합니다. 영생이란 인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어둡고 쓸쓸한 무덤을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말고 “주님의 뜻”때로 행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눈을 하늘로 돌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참된 사랑과 구속과 부활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겠다는 이상을 가지므로써, 그와 같이 되려 하고 그를 따르려 하는 소망을 우리는 스스로가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도록 생을 똑바로 알아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와 굶힐줄 모르는 성품의 바울,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외의 부활하신 주님의 참된 추종자들은 그가 인간의 구세주임을 인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라 인간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모세서 1:39)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영속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그들의 이상인 죄없는 인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는 이 땅위를 걸은 단 한분의 완전한 존재이며, 가장 고귀하신 분이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완전하신 사랑의 분이십니다. 그는 인류의 구속주 이시며, 구세주 이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순결한 아들 이시며, 빛이요, 생명이요, 길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속주는 살아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

스터얼링 더블유. 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2사도 정원회 보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 많은 개념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의 불멸성과 인간 영혼이 귀착할 영원한 영광에 관한 것이다. 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 인간의 영원한 발전과 행복등 성스러운 계획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다. 이 계획을 그러한 계획 달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이 하여야 할 부분을 다 하지 못하면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만다. 우리가 계획의 세부적인 것까지를 모른다고 해서 충실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안된다. 세상에는 일의 전모를 알날이 다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출생, 삶이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러한 철학은 어떤 구체적인 성공은 불가능하다는 극단적인 한계를 설정하게 된다.

예수가 가르치신 사상중에서 가장 심오한 것의 하나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 만일에 영양과 건강의 법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비록 그 세세한 과정을 모른다하여도 자신은 큰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것은 전기에 대하여 그리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전동, 전력, 전열의 혜택을 받는 것과 같다.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경을 존경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아직 중력 자체는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이다. 중력의 일부만을 알고 있다. 전기나, 태양 광선이나, 초목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자라는지를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며, 체내의 세포가 어떻게 분열, 결합하는지도 잘 모른다. 약 300년전 하비가 발견하기 전에는 피가 어떻게 흐르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아무리 설비가 좋은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라 할지라도 적혈구의 생산은 엄두도 못낸다. 생을 창조하고 죽음을 막을 자는 없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역시 생명이며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크게 치뤄야 할 행사는 죽음인 것이다.

죽음은 불멸에 이르는 길이다. 죽음은 사고나 누구의 잘못으로 생긴 결과는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계획

의 일부이다. 육체의 부활과 영의 승영 이전에, 영의 복음 교육과 깨끗게 되기 위한 최종 단계로서 육체와 영혼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것에 관계된 일을 불유쾌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것을 올바르게 생각지도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다. 우리가 죽음을 올바르게 바라볼 때에만 효과적으로 죽음을 맞을 준비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은 단순히 존재의 정지가 아니다. 육체의 실질적인 부활등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 일체를 믿는 철저한 신앙은 참다운 의미의 유익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전체적인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부활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는 없다. 성공에 이르는 훌륭한 기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들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고로 많은 사람이 그를 불신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믿지 않으려하며 다만 그를 정상적인 두뇌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에 싸인, 비 인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대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에 생기는 도움을 상상하여 보라. 경전은 그 분을 전지 전능하시며,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는 분이며,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분은 영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은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은 율법과 기적과 질서와 아름다움등을 지으신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영의 아버지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 계획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것에 따라 살지는 않겠다고 하는 우둔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적은 축복에 국한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뽑내는 지식이 하나님의 그것에 백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해하지도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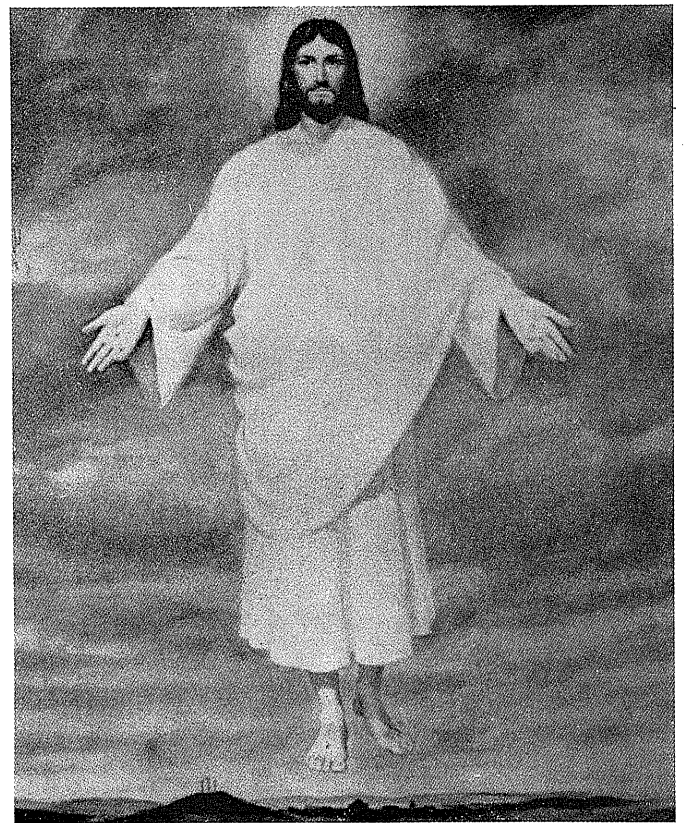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말했다(고전 2:9).
 결점과 연약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겠는가? 어떻게 그를 불신하고 무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해롭고, 변덕스럽고, 일시적인 일은 하지 않으신다. 경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분의 그러한 말씀도 있고 또한 우리는 명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고 고난에 가득찬 생활이 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마련하신 훌륭한 계획을 앞에 두고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믿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육체, 개성, 감정, 기억력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요소를 영원히 잃고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몇 방울의 물이 되어 광활한 대양에 떨어지는 격이 되어 결국은 개인적인 것은 다 없어진다고 믿는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육체에 영을 불어넣어 주시며, 생각하는 정신과 사랑하는 마음과 일할 손을 주시고서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전혀 가치가 없는듯 모든 걸 쓸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은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에 비교하여 볼 때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경험과 이해력이 부족한 자녀에게, 보다 현명하고 경험이 풍부한 부모로부터의 충고를 받아들여기를 바란다. 다섯 살 먹은 아이가 제멋대로 하려고 한다면 무슨 사고나 잘못을 꼭 저지르고 만다는 것을 안다. 학교를 빠지고 건강의 율법을 계속키지 않으려 한다면 그에게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태도로 인간은 실제로 육체적인 부활을 한다는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생활에 전념할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부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은 들어서 잘 아는 바이다. 의로운 사람의 부활이나 의롭지 못한 사람의 부활이 그것이며, 이 둘 사이에도 그야말로 수많은 계층이 있음을 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 선한 자건 악한 자건 모두 다 부활한다. “아담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그러나 우리가 바른길을 따라 발전했다면 부활했을 때의 상태를 높일 수 있다. 히브리인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의 상태를 위하여”에쓰는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 있다. 고린도인에게 하신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에, 달의 영광에, 별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밝히



고, 이어서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고전 15:41~42)라 하셨다.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율법대로 생활한다면 해의 영광의—육체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해의 영광의—영혼이 된다. 우리는 육체를 무척이나 아름답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다. “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옥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과 피, 뼈와 조직, 예지와 이성, 시현과 개성을 적절히 조직해서 인간을 만드셨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매일 주위에서 보는 것 처럼 비록 연약한 인간이 이루어놓은 훌륭한 일은 믿으면서, 이미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의문을 품으니 이상하다. 많은 사람이 증거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를 볼 수 있다. 예수의 부활에 따라 많은 사람도 부활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첫번 부활은 1900년 전에 있었고 복천년의 천년이 끝나는 그리스도가 이 지상을 통치하려 오시어 다스리는 날에 끝날 것이다. 그가 오시는 날에 주님과 같은 의로운 삶을 영위한 자들은 하늘로 들리워 올라가 그를 맞을 것이다. (테전 4:17) 요한은 이

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 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 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 20 : 5 ~ 6) 의로운 부활에 적합치 못한자는 복천년 이후에 부활한다.

부활을 믿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육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인간의 육체는 곧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에 속하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댓가로 주어진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많다. 그래서 최수와 같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은 곧 영의 해방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육체가 필요치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애당초 창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영원이라는 과정에 필요치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육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필요치 않았다면 그의 아들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일시적인 안일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예수는 부활한 후 육체를 잃지 않았다. 증기와도 같이 사라져 없어진 것도 아니며, 신비스런 방법으로 커져 우주를 채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육체, 개성, 감정, 형체가 없는, 이해 불가능한 물체가 아니다. 현대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며, 우리들은 그의 형체대로 창조된 부모를 닮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지상을 다시 방문하셨으며 이로 말미암아 두분이 서로 다른 독립된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현대의 경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령은 살과 뼈의 몸이 없으시고 다만 영적 존재시니라”(교성 130 : 22)

영은 그 자체만으로는 불완전한 개체이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영일뿐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는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분을 영원한 율법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육체의 전부나

혹은 일부를 잃을 수 있으며 단순한 영향력이나 영원한 원리에 불과하다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또 그것을 거절할 때면 상당한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비타민, 전력, 일광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의 유익한 결과를 즐기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아끼지 않는다는 논법을 전개하면 된다. 그가 우리들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능력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부활로 이끌겠다는 약속을 어김없이 지킬만 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다.

베드너 폰 부라운 박사는 언젠가 이런말을 했다. “과학이 종교적인 관념을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나의 의견은, 과학 자체가 경이스런면을 내포하고 있어 회의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들어 과학은 자신에 관하여는 일체의 답변을, 아주 적은 입자라 할지라도 종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은 소멸하지 않고 다만 변형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인간의 영혼에까지도 그런 원리가 적용한다는 이론에 어찌가 있을까? 나는 그런 원리가 인간의 영혼에 적용한다고 생각한다. 과학이 과거에 가르쳐 왔고 또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죽은 다음에도 영적인 존재가 가능하다는 신념을 확고히 해줄 뿐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없다.”

언젠가 우리는 그런 때와 장소에 이를 것이다. 그 때는 이 위대한 행사가 정말로 일어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에 속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부활하는 때에 가장 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윌리엄 제임스는 “영생에 관한 논쟁점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인간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인간의 가장 중대한 책임은 해의 영광의 부활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하는데 있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리하여 주실 것이다. 순수한 정신이 혈관을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잘 될 것이며 그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끝날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 : 25~27)



카렌의 두 눈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조디가 전에 경대 위에 놓은 쪽지에 떨어졌다.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라고 외딴 자기 방으로 가면서 이야기한 것이었다. 카렌은 조디가 언제나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는 했다. 그렇지 않다면 조디의 현 상태가 이런 조건 하에서는 정상이란 말인가? 읽고 또 들어본 것을 통털어 보아도 죽음을 목격한 어린 아이가 갖는 슬픔에 대한 문제는 기억되는 것이 없었다. 이 아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 아파 했던가? 카렌은 봉투를 뜯어 속에 든 것을 읽었다. 「월손부인 귀하 12시 30분에서 한시 사이에 편리한 시간을 택하여 일차 방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과후에도 무방합니다. 좋으신 쪽을 택하십시오. 메리 잭슨 드림」

카렌은 조디가 보는 앞에서는 태연하게 보이려 무던히 애를 써야했다. 원래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어떤 때는 놀랄만한 기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렌은 조디가 이 불행한 시기에 불행한 기억을 몸에 베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마음은 울고 있으나 웃어 주었고, 울고 싶은 마음을 감추고 이야기하거나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조디는 거의 모든 것에서 소외되었다. 아무 말도 않고 밥을 먹고는 학교로 간다거나 자기 방으로 가는 것이다. 카렌은 직장을 갖기로 하였다. 이전의 둘의 상태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카렌은 자기에게 조디가 있음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다른 아이를 하나 데려오기로 했다. 아이들이란 동기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건강치 못한 그녀의 친구 아트는 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아트와 조디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생각하자 슬픈 가슴속에 일말의 기쁨이 찾아들었고, 이에 그녀는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두 시간 후에 학교 근처에 온 카렌은 아트와 조디가 함께 숙제를 하던 광경을 그려보았다. 고등학교 선생이었던 아트는 대부분의 성년 시절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다. 조디에게는 아버지요, 교사요, 충고자요, 친구였던 것이다. 결국 카렌은 아트의 죽음과 동시에 조디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 많은 공백을 메꾸어줄 수 없다고 느꼈다. 보나마나 잭슨 선생은 숙제를 잘 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도대체 얼마 전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할 단 말인가?

조디가 숙제를 잘못해 온다고 말한들 무슨 말을 할수있단

마 음 을 다 하 여

아이다 엠. 바칸

말인가? “어떻게나 맥의 아이가 다른 아이와 어울리지 못하는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선생은 이마의 주름을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은 그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시나요?” 카렌은 자기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매꾸했음을 후회했다.

“알죠.” 선생은 눈을 크게 뜨고 의아한 듯이 말했다.

“맥의 아이가 죽음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당한 아이를 여럿이나 보아 왔어요. 이렇게 행동한 아이는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 주일이나 계속되다니 비정상이죠. 어린 아이들은 삶의 변화에 오래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인데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한단 말이죠. 아마 지금도 맥의 아이는 혼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아이가 아버지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카렌은 그 여자와 다투고 있다는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죠디가 다른 아이와 어울리지 못한다고 걱정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죠디의 행동에 이상한 무엇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치 않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는 어머니와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딸 아이와의 관계는 훌륭했었어요”. 카렌은 일어나 장



갑을 끼면서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양녀예요. 양자란 때때로 자기가 직접 난 아이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하시는데군요.” 윌슨선생도 따라 일어섰다. “빠른 시일내에 무서운 우울증에서 건져내실 수 있었으면 해요.”

무서운 우울증. 집으로 돌아오는 카렌의 마음속에 수없이 반복된 말이다. 지극히 쾌활하고 티없고 행복한 아이에게 이런 묘사가 어울린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죠디가 수 주일동안 어머니에게 애착을 느끼지 않았다니 역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애당초 슬프게 만든 것은 카렌이 이런 기미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런 감정이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하려 애썼다.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오늘 아버지를 잃고 그 다음 날 아이들과 뛰어노는 아이도 있다. 그러나 죠디는 그렇지 않았다. 총명하고 영리하고 부지런한 죠디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무슨 조치가 있어야겠다. “죠디아, 너 왜 요즘 나를 피하지?”라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직접적으로 접근하였었다. 아이도 자기가 양자임을 알고 있었다. 카렌도 그 사실을 꺼리끼지 않고 자주 여러사람이 있는데서 이야기하고는 했다. 비록 주위 사람들의, 특히 역시 두 아이를 양자로 기르고 있는 친구 해티에게서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독한 비난을 사기도 했지만. 요사이 갑자기 냉정해졌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자기의 아픈 곳을 찌르기는 했지만 이제 새삼스럽게 해티를 생각지 않기로 했다. “왜 해티 아줌마를 보러 안가, 엄마?”라고 물을 때면 “멀리 이사간 걸”이라고 대답하고는 했었다. 6주간 떨어진 곳을 ‘멀리’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카렌은 아직도 해티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양자라는 것을 왜 공공연하게 말하지 못한단 말이지?” 카렌은 물었다. “양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야.”

“문제가 무슨 문제람!” 해티는 반박했다. “하기야 아이에게 알리는 주어야지. 그러나 그걸 아무 때나 기회있는 대로 들어낼 수는 없는 거야. 아주 미묘한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다루어야 해. 언제나 귀찮게 자꾸 되풀이 해서 안되지.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은 양자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든지 생각하든지 상관할 바가 못되지.”

그들은 만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두 사람의 우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카렌은 남편이 죽은 다음 해티가 찾아줄 때까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랐다. 카렌이 그녀와 이전의 관계를 되찾기를 바랬다면 잘못이었다. 수 주일이 지났으나 해티는 다시 찾아주지 않았다.

카렌은 맨처음 죠디와 양자에 관한 문제를 상의했을 당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죠디가 여섯 살 먹었을 때의 어느 저녁에 저녁을 먹다 말고 “옆집에 사시는 크로스 아주

머니가 기르는 애기 있잖아?”라고 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래 있지”카렌이 대답했다.

“그 애기는 어디서 나왔어? 내가 온 테서 나왔어?”

“엄마안에서?”

“아냐! 너는 양녀야.”

“나는 왜 엄마 안에서 안 자라.”

“조그만 애기가 내 안에서는 자랄 수 없어요. 정원에 흥당무, 도마도, 콩을 심었다고 생각해 봐. 사는 것도 있구 크는 것도 있지? 애기가 어떤 때는 엄마 안에서 자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거든. 엄마는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사람이 애기를 갖다 맡기는 곳에 가서 제일 예쁘고 귀여운 애기를 골랐거든. 그게 바로 너야.”

“엄마, 과자 더 먹어도 돼요?”

인간의 생활에는 추억을 되살릴 만한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추억이 불연듯 이는 수가 있다고 카렌은 생각했다. 아찌하여 그녀는 스포티가 2주일된 새끼 4마리를 낳고 차에 깔려 죽던 그 슬픈 날을 회상 했는가? “강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조디는 울었고, 카렌은 마음이 부서지는 듯 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서서 맡아 기를 때까지 잘 돌보아주는 테가 있어. 우선 거기에 보내야 겠다.”

“그럼 나와 똑 같잖아! 나를 낳아 준 엄마는 죽었어? 그 고아원 애들의 엄마는 스포티처럼 다 죽은건가?”

“아니, 다 그렇지는 않아. 때로는 그렇기도 하구. 너무 아파서 애기를 돌볼 수가 없는 사람도 있구, 아버지가 없는 아이도 있어. 아기란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아빠 엄마가 있어야 해요. 아빠, 엄마, 애기, 이렇게 해서 가족이 되는거지.”

카렌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마음 한 구석에는 아픈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다. 아트의 옷장을 정리하여 옷을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옷장 근처에도 못가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는 해야 되는 것이다. 내일 조디가 학교에 가고 없는 틈이라도 실망한 자신을 보여서는 안되지. 조디에겐 언제나 냉정하고 용기 있는 면을 보아야 해. 밤에만 벼개에 얼굴을 묻고 울어야 한다. 아트의 책상에서 이제까지 발견치 못했던 조상(吊喪) 카아드를 집어들었다. 한 학교에서 십년이나 가르쳤으니 많은 제자가 그를 거쳐갔고 제자를 사랑하는 아트의 정성은 그들 사이의 식지 않는 우정을 지속케 했다. 카드 한 장을 집어들었으나 그 위에 쓰여진 글자 대신에 딸의 슬픈 얼굴이 보였다. 어떻게 하면 나는 조디를 절망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수심에 가득차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 보던 그녀의 두 눈은 만삭이 다된 이웃집 노크로스부인이 정원에 있는 베 살 백이 아들에게 걸어가는 모습에 머물렀다. 카렌은 책상을 떠나 노크로스씨가 사는 집으로 통하는 길로 건너갔다. 간단하게 자기의 문제를 주저하는 태도로 설명하고, 오늘 오후에는 집에서 잠시 나와 있게

하자고 공모하였다.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노크로스여사가 말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조디를 노크로스 아주머니가 부르는 모습을 창문에 기대서서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몇 마디의 말을 주고 받고는 조디는 미소를 띄우며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엄마, 노크로스 아줌마가 아이 좀 봐 달라구 그러는데요. 피곤해서 누웠으면 좋겠다구요. 가서 봐 출까요?”

“물론이지. 그렇지만 우유부터 마시구.”

식탁에 앉은 조디의 방금 가졌던 쾌활한 표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한 달 이상이나 떠나지 않았던 우울하고 불행한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카렌은 주의깊게 관찰하였다. “애기를 갖는 엄마는 언제나 피곤해요?”

“응, 대개는 그렇지.”(그렇지. 더 물어보렴.)카렌은 혼자 생각하였다.(더 물어 보렴. 아무 것이나 말이다.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된다. 애야.)

“엄마가, 노크로스 아줌마가 포울을 배었을 때, 아기는 가슴에서 자란다구 하셨던 걸 기억해요.”

“그렇단다. 아기가 자라는 곳이지.”

조디는 천천히 일어나 문쪽을 향하였다. 한 마디 말도 없이, 뒤도 돌아다 보지 않고 조디는 떠났다. 카렌은 조디의 완전히 실망한 모습을 보고 불행과 착잡한 심정에 빠진 채 그녀의 뒤를 쳐다보고 있었다.(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그 아이가 나를 피하다니! 나를 믿지 못하다니!)

카렌은 억지로 아트의 책상으로 가서 날이 어두어 질 때까지 조문을 보내준 분들에게 답장을 쓰고 있었다.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다. 구이판에 스테이크 두 개를 올려놓고 식탁에 의자 두 개를 놓았다. 그리고는 창문으로 조디가 오나 넘겨다 보았다. 정원은 비어 있었다. 나무로 만든 그루에 조디가 즐기는 사라다를 담아 놓고 다시 밖을 내다 보았다. 망설이듯 선반 위에 있는 으깬 감자를 꺼내 들었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하듯 제 자리에 놓고 부엌을 나가 옆집으로 가기 시작했다. 산만한 것같이 보여서는 안된다. 두 집을 연결한 길을 느린 속도로 건너갔다. 녹크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노크로스 부인은 등의자에 기대고 앉아 아들에게 무엇인가 읽어주고 있었다.

“조디는 어디 있어요?”카렌은 물었다.

“아니 집엘 안갔어요? 간 지가 한 30분이나 되는데.”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몸을 반쯤 문쪽으로 향했던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노크로스를 근심스럽게 쳐다보며 “나갈때는 꼭 말하고는 했는데.”라고 말했다.

“어디 이웃에라도 들린게지.” 희망적인 투로 이야기하려고 애썼다. “알아보지 그래요…… 나라도 가볼까?”

“아노, 제가 가보죠.”

한 집 한 집 찾아가 벨을 누르다 보니 길 양쪽에 있는 여덟 집을 다 들리게 되었다. 이제는 별 수 없이 경찰에

신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기운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에는 걱정에 싸인 노크로스 아주머니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 테도 없는걸요.” 힘없이 말했다. 문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때 전화 벨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달려들어 수화기를 들었다.

“카렌이야? 나 해티야.”

“응, 그런데?” 해티로 부터의 전화는 상당히 기뻐으나 안부 전화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조디가 여기 있어.”

백이빠져 무릎을 꿇었으나 목소리만은 보통 처럼 내려고 애썼다. “아니 어떻게 거길 갔지? 거길 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곧 데릴러 갈게.”

“아니 펜찰다면 내가 데리고 갈게. 마침 톰이 집에 있으니 갈 수 있어.”

카렌은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고 의자에 앉아 마음을 안정시켰다. 모든 힘이 다 빠진 듯, 정신이라도 바로 잡으려는듯 조용하고 어두운 집에 앉아 있었다. 조디가 해티에게 갔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문에서 나는 노크 소리를 듣고 일어섰다. 거기에는 노크로스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왜 불을 안 켜구. 난 흑시……”

“조디는 친구 집에 있어요. 아주 오래 된 친군데, 해티 스콧트라구.”

“스콧트라구? 조디가 전화 번호부에서 찾아달라구 하던 이름인데. 그리구는 부릭스가가 어디쯤 되느냐구 묻던데. 여섯 구간 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던군.”

“이사 간지 얼마 안되요. 아직 한번도 가지 않았어요.”

노크로스 아주머니를 보내기 위하여 현관에 불을 켰다. 다시 홀로 남아 교묘하게 잘 얹혀 일정한 형태로 짜여져 혼란의 미로로 빠지게하는 사색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 기뻐다. 6구간을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담. 그들이 도착하면 모든 건 자연이 알게 될 것이다. 그녀의 초조는 불안으로 범벅이 되었다. 발소리에 놀라 문으로 달려간 그녀는 그들이 첫계단을 마약 오르기 직전까지 도달한 것을 보았다. 불빛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조디는 무척이나 울었고 해티의 눈에도 역시 습기가 서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애 조디아.” 아이를 끌어안았다. “얼마나 걱정했다구.”

“카렌, 저녁을 조금밖에 먹지 못했는데.” 해티의 목소리는 다급한 것을 강요하는 듯 했다. “방에 가서 자게 하는 게 어때?”

“그게 좋겠다. 애야 새 잠옷을 입구 해티 아줌마한테 보여주자. 얼마나 예쁜가?” 조디와 함께 방을 나오면서 분노에 가득찬 눈으로 해티를 쳐다보며, “어찌된 일이지”

“글쎄 어떻게 해야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벼란간 질문에 나타나서, 도망나왔으니 같이 살게 해달라구 하지 않았니?”

“뭐, 뭐라구?”

“그래, 나두 지금 너만큼이나 놀랬다. 양자로 들썩이나 두었으니 셋도 둘 수 있을 것이라구 말이다.”

“난 이해를 못하겠다. 정말이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제, 난 알것도 같애. 조디가 이야기 할 거야. 나없는 데서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내일 점심이나 먹으러 오지. 오래간 만인데.”

카렌은 조디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졌던 불확신을 더 강하게 느끼면서 조디의 방으로 갔다. 조디는 새 잠옷에 달린 리본을 만지작거리며 침대에 앉아 있었다.

“조디아,” 옆에 앉아 불쾌한 어조가 나오지 않게 하느라고 애쓰면서, “왜 집이 싫으냐?”

“전 고아원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울면서 말했다. “다시 돌려 보내는 건 아니죠? 해티 아주머니도 엄마는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라구 그랬어요.”

부운 눈을 쓸어주면서 카렌은 물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니?”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조디는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나를 그런곳에 보낸 거라구요. 이제 아빠두 돌아가셨고, 난 엄마하구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잖아요. 해티 아줌마는 양자를 들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줌마와 함께 있게만 된다면 전 엄마하구 가깝게 있을 수 있잖아요. 때때로 엄마두 볼 수 있구 말이에요.”

“조디, 조디아!” 카렌은 무릎을 꿇고 조디를 끌어 안았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라든?”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디는 눈물이 아닌 재확인 필요했던 것이다.

“너에겐 아빠가 있었잖아. 10년 동안이나 같이 말이다. 네가 어린 아이였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너를 키워줄 아빠가 필요했거든. 아빠는 다른 아이 보다는도 너를 아름답게 키우셨지.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아빠를 네가 잊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아. 그런데 너를 다른 데로 보내? 나는 어느 때 보다는도 네가 필요해. 우리 아빠를 잃었어. 우리는 서로를 잊을 수 없어. 네가 없다면 난 살아 무엇하니?”

카렌은 자기의 두 뺨을 어루만지는 작은 두 손을 느꼈다. 자기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응시하고 있는 크고 이슬 맺힌 푸른 두 눈을 보았다. “내가 엄마 가슴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사랑해 주지?”

“그럼. 더 사랑하지. 내, 내가 낳지 않았다고 해도, 넌 내 마음속에서 자란거야. 내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난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해.”

벼란간 아이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갖혔던 감정의 힘으로 마침내 방파제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어머니” 그녀는 울부짖었다. 조디를 품에 안고 있던 카렌의 두 눈에서는 홍수처럼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리고는 중얼거렸다. “내 딸, 귀여운 보배!”

“방향이 없는 사상과 행동은 의미없는 움직임 속에서 흔들리기 쉽다. 항해자들이 북극성을 보고 진로를 결정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세계 탐험사에 큰 공헌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목표



윌리엄 조지 졸단은 “인간에게는 두분의 창조주 즉 하나님과 자신이 있으니 첫째 창조주는 인간을 지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고—사람이 바라는 대로의 생을 가능케 하는 율법과 조화—둘째 창조주인 자신은 좀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자신을 값있는 존재로 만든다”고 말하였다.

여러분이나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어떤 삶으로 만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생의 목적 및 의의에 초점을 기울여야 한다. 목표가 없는 생활이라면 이는 마치 역류를 타고 방향없이 떠가는 뗏목과 다를 바 없다.

“어디로 가겠다는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어느 길을 택하는 상관 없다”고 한 어떤 사람의 말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이 말은, “내가 상관할 바 아냐”라는 태도에 젖어있는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적절한 충고가 된다. 젊은이들과 특히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들은 반드시 훌륭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목표는 방향과 의미를 제시한다.

방향이 없는 사상과 행동은 의미없는 움직임 속에서 흔들리기 쉽다. 항해자들이 북극성을 보고 진로를 결정했다

는 사실이야말로 세계 탐험사에 큰 공헌이 아니겠는가? 옛날에는 믿을 수 없는 적의 역할을 했던 바다가 방향을 제시하는 별로 인하여 귀중한 교통 수단이 되었다. 중국 역사에 보면 황제(기원전 2636년) 치세 64년에 황제는 탁록 평원에 있는 치우를 습격하였다. 이때 황제는 적이 일으킨 길은 안개에 당황하게 되었으나 남쪽을 가르키는指南차를 만들어 방향을 알아내었고 그의 군사는 드디어 방향을 찾아 치우를 추적하여 그를 사로 잡았다.

이 세상에는 방향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갈바를 모르고 “안개”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목표에는 두가지 중요한 형태 즉 가까운 목표와 원대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중요한 뜻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가정을 이룩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놓고 생각해 보기로 하자.

목표가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먼 장래에 있는 목표를 달성시킬 때까지 가까운 장래에 있는 목표를 즉 “오늘은 땅을 파고 내일은 기초를 놓고”하는 식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원대한 목표는 성취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아론 신권 소유자가 선교사가 되는 것을 먼 장래의 목표로 삼았다면 선교 사업에 준비 단계가 되는 매일의 목표, 자신의 신권을 존중하고, 경전을 연구하며,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먼 장래의 목표는 가까운 장래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매일 매일의 충족을 위해서 먼 장래의 목표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때 위대하고 현명 했던 솔로몬 왕은 작은 목표와 육체적인 욕구 충족을 추구 하던 나머지 먼 곳에 있는 큰 목표를 잃고 말았으며에서도 주린 배를 채워야 한다는 근시안적인 목표 때문에 먼 장래에 있을 큰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가까운 곳에 있는 목표와 먼 곳에 있는 목표는 둘 다 성공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가장 큰 만족을 가져오는가?”는 생각할 문제다. 이에 대한 답이 복음의 위대한 일면을 보여준다.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대의 만족과 최대의 성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실현성 있는 계획이다. 현세에서의 최대 목표는 해의 영광에서 승영을 얻는 것이며, 이 목표는 어떤 점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이 큰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직접적인 목표는 복음에 의하여 그 뜻이 밝혀진다. 이 중간적인 목표에는 침례, 성신의 안수, 벨키세릭 신권에

속한 제의식, 신전결혼 등이 있다. 이 중간적인 모든 목표는 매일 매일의 목표가 수행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자신이 훌륭해야 한다든가 신권의 과제를 이행한다든가, 경전을 연구하는 등의 일이다.

복음은 생을 성공적인 것으로 이끌어 가지만 사람들이 각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목표는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여기서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노력하려고 합니다”라는 식의 약한 것이 아니라, 욕이 고난 중에서 재 확인하는 말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외친것과 같은 강한 말이다. (요기 19 : 25~26)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위대한 약속이 필요하다.

벡케이 대관장님은 현대인들이 의로운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악의 세력이 오늘날과 같이 무서운 기세로 무장한 적은 일찌기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위기에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착지를 잃고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사실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에베소서 4 : 14) 사탄과 그의 세력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지켜주는 높은 이상과 신성한 표준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최근에 어느 형제가 “사탄은 이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높은 이상을 파괴할 미끼와 유혹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고 싶어한다.”

“사탄은 죄악을 세상에 널리 퍼쳐서 우리와 동등하게 되고 싶어한다”

“우리 주위에서는 높은 표준이 타락해가고 있으며 저열한 것들이.....특세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표준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7년 6월호 23페이지)

젊은이 여러분. 특히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높고 값 있는 목표를 세운 여러분이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한것 처럼 되기를 간구하는 바이다. (빌립보서 3 : 13~14)



가족과 부활

로이 더블유 록시

(부리감 영 대학교 종교학 조교수)

위대한 것은 많은 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한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서 부활보다 더 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위해서 보다도 더 잘 준비해야 할 일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찾기 위함”(니파이 이서 2 : 25)이며 “행복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뜻”이라고는 하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이 부활했을 때에 비로소 온다. 이 위대한 진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서 “사람은 영인 까닭이니라 원소는 영원하니라 영과 원소는 떨어질 수 없게 결합되어 있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느니라. 서로 분리될 때에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느니라”(교성 93 : 33~34)고 기록되어 있다.

이 위대한 진리는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다.

부활에 관하여 말일 성도들이 알고있는 귀중한 사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 중에서 “부활에 관한 참다운 지식과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의 성도가 받는 큰 안위와 기쁨의 근원이다”고 한 부리감 영 대관장님의 표현은 참으로 적절하다. (부리감 영 대관장의 가르침 19페이지)

인간의 부활에 대한 느낌과 실제성은 시현에 의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부분적으로 알려졌으며, 예언자는 로렌조 디 바베스가 영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시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제가 만일 내일 세상을 떠난다 하여도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무덤의 돌이 열리면서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 아들이 내 아들이”하고 부르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실제적인 사실로 간주해도 좋을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도리 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 흥미있는 사실을 시현에서 보았다고 얘기한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 지상에서 소유했거나 또 기대했던 기쁨의 열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현은 매우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천천히 나오는 것을 실제로 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이” “내 딸아” “형님” “누나” 이렇게 서로 부르며 외쳤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아버지 곁에 누어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마음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리고 동생을 만나는 일이며 만약 그들이 내 곁에 있다면 나는 그들을 껴안을 것입니다……”(교회정사 제 5 권 361~362페이지)

말일 성도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위에 기록한 시현에서 받은 느낌으로 인하여 부활 및 가족을 사랑의 유대로 계속시키는 부활의 의의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할 것이다. 말일 성도들은 살아있는 예언자와 현대 경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축복받은 백성들이라 할 수 있다. 고대 및 현대 예언자들의 간증은 부활과 같은 근본적인 교리에 관하여 우리의 이해와 간증을 키워주는 비옥한 터전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간증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종교의 근본 원리가 된다.

“이 종교의 근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즉, 그분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 승천하셨으며, 기타 종교에 관련된 모든 것은 이에 부수적이라는 신지자들과 사도들의 간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성신의 은사, 신앙의 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 가문의 회복 및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다. (교회 정사 제 3 권 30페이지)

말일 성도 어머니들이 “사도와 예언자들의 간증”에 따

라 자녀를 교육하면 흥미있고 유익한 면이 또 하나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관한 것이며 그의 신성한 사명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이다.

야콥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주께 가까이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야콥서 4 : 11) 그리고 영원한 계획 중 에서 예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시사하였다.

“보라 나의 형제들아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게 하여 인간들이 이를 깨닫게 할지니 영은 진리를 말하며 거짓말하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영은 만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장차 이를대로 이야기하나니, 우리들 영육을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간절하게 나타내 보이시느니라. 보라 이를 증거하는 자가 우리들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옛 선지자들에게도 역시 말씀하여 전하셨으나”(야콥서 4 : 13)

하나님은 그의 선견지명으로 예수의 지상 생활이 있기 수세기 전에 성스럽게 임명한 그의 선지자들을 영감을 불어넣어 예수가 다시 사시리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모사이야 13 : 33~35 참조) 모든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은 죽음에 영원히 사라지고 무덤이 더이상 인간의 영육을 억압하지 못하게 될 그 때를 고대하고 있었다. 이것에 관한 구약의 예언중 가장 훌륭한 것은 이사야서 26장 19절일 것이다.

“주의 죽은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슬픔 혹은 사망) 빛난 이슬이니 (사망은 이슬이 아침 햇빛으로 사라지는 것 처럼 곧 없어질 것이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팔호안 저자 첨가부분)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은 앞으로 있을 부활을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희망이라고 외쳤다. 말일성도들은 감축으로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멸의 상태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것을 입증했던 욥과 (욥기 19 : 25~27) 살과 뼈가 있는 육체가 실제로 결합된다는 것을 말한 에스겔 (에스겔서 37 : 1~14 참조)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다 부활된 삶을 얻으리라는 다니엘의 간증 (다니엘서 12 : 2) 을 기억할 것이다.

물론경의 선지자들은 이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근본 주제에 대하여 더 큰 신앙과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예언을 (간증) 기록하게 하였다. 아빈아다이 (모사이야 16 : 7~10) 앰올레크 (엘마 11 : 41 : 44) 야콥 (니파이 이서 9 : 6~8, 11~13) 엘마 (40 : 21~23) 및 레이맨인 사무엘 (힐라맨서 14 : 15~16)은 예수님이 시행한 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시 육체를 얻고 그것이 다시는

분리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부활에 관한 이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은 현재 성취된 기타의 많은 예언들과 함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재자 이심을 입증한다. 경전이 신성함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는 “그가 사도와 예언자들에게 주신 약속 처럼,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계시되었으며 말일성도 어머니들에게 가장 호뭇하고 아름다운 한가지 교리는 내세에서도 영원히 가족단위로 결합된다는 사실이다. 영원한 발전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거쳐야 하는 다음 단계는 돌아가신 예수도 거친바 있고 (벤전 3 : 18~20) 모든 사람의 영혼이 반드시 들리는 (엘마 40 : 11~40) 영육이라고 말일 성도는 믿고 있다. 영의 세계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들이 모두 진보할 기회를 갖는 곳, 즉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년노하여 죽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 간다. 여하튼 죽을 때의 몸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들은 모두 어른의 모양이 된다. (복음 교리 제 6 판 455페이지) 사망한 어린 아이에 관한 사실은 영의 세계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말일성도 자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약속의 성취는 요셉 윌딩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나타난 것 처럼, 부활할 때에 실현된다고 가르쳤다.

“요셉 스미스는 어린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다 성장한 어른으로 키울 특권과 기쁨과 만족의 기회를 잃은 어머니는 부활한 후에 그 아이가 영의 모습대로 완전히 자란 것을 보고 죽지않고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 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희열을 한꺼번에 맛 보리라고 외쳤다.” (복음교리 제 6 판 453페이지 : 교회정사 제 4 권 555~557 페이지)

이점에 관해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너희가 계속하여 충실하다면 너희가 잃은 모든 것은 부활할 때에 너희에게 채워지리라. 나는 전능하신 분의 시현으로 그것을 보았다”고 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부활한 몸은 유한한 우리들의 육체가 그러하듯이, 그 크기가 각각 다를지라도, 높고 짧음에 관계없이 영광에 차 있다고 하신 말씀은 이 가르침과 일치한다.

너희의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천사 이상의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약속 즉 특정한 의식과, 축복

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사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죽은 것 처럼 또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해의 왕국에서와 같은 영광, 즉 그만큼 아름다움을 지닌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환호성을 치며 마지할 것이다. 그들은 모습과 체구가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영광스러운 영들이기 때문에 영광과 영화는 동일하게 주어진다. 백발이 된 노인도 한창 시절의 정기와 아름다움으로 빛날 것이며 그것을 묘사하거나 기록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회정사 제 6권 1 : 366)엘마는 부활할 때에는 육체의 결합이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육체를 갖는다고 간증한 바 있다. 고대 예언자들은 부활의 일면을 이렇게 확신하였고, 이 경륜의 시대에 영감받은 지도자들이 새롭게 주장한 면도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이는 모든 사람에게 안도감을 갖게 한 요인이 되었다.

“영은 육체로 돌아가겠고 육체는 영으로 돌아가겠음이라. 육신의 사지와 관절이 원래의 모양대로 회복되고 머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요 신체의 모든 부분이 본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회복되리라.”(엘마 40 : 23)

육체로 부활하실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을 확실히 안 엠올레크는 완전하게 부활된 육체에 관하여 감명깊은 간증을 했으며 또한 부활하면 영원히 육체와 영이 결합된 상태로 있게 된다는 심오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다.

“이른 바 육체적 죽음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육체적 죽음의 사슬을 푸신지라 모두가 이 육체적 죽음에서 일어서리라.

이 부활은 모든 사람 곧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속박에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 남자나 여자, 악하거나 의로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요,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않고 혹 지금 우리가 가진 대로가 아니라고 하면 인간의 형태 그대로 완전한 모양을 갖추어 회복되리니 그런 후에 합하여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심판대에 끌려나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저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보라 나는 너희에게 죽지 않으면 안되는 육체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지 않으면 안되는 육신이 불멸의 몸으로 일어설 것이요, 처음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니 다시는 죽지 아니하리라. 저들의 영은 육체와 결합하여 다시는 나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하여 전체가 영적이며 불멸의 것이 되어 다시는 썩지 아니하리라. (엘마 14 : 12~45) (팔호안 저자첨가 부분)

선지자들의 간증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육신으로 생활하는 정도에 따라 내세에서 축복 혹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된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의로운 율법에 순종하면 해의 영광의 부활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해의 영광에 속한 영들은 육체였을 때와 똑같은 몸을 받으리니 너희는 너희 몸을 받을 것이요, 너희 영광은 너희 몸을 살리시는 그 영광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교성 88 : 28) 부활에서 받은 몸은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다. 여기에서 부모는 자녀들의 건강과 도덕적인 순결에 관한 율법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할 교훈을 찾지 못할까?

부활과 그에 따르는 많은 사실을 알고있는 말일성도들은 얼마나 다행한지 모른다. 복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부활의 실제성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은 이보다 더 복될 수 있을까! 모로나이, 칩체 요한, 엘리야, 모세 및 다른 선지자들이 부활된 몸으로,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영광과 권리와 특권과 열쇠와 축복을 이땅에 가져왔다. 이 선지자들은 각각 이 신권 시대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남으로써 육체의 부활에 관한 구체성과 실제성을 입증해 주었다.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많은 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있게된 부활은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았고 또 현재 살며,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육체적인 사망에서 육체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 (사행 24 : 1; 계시록 20 : 13; 엘마 12 : 16~18을 참조하십시오.)

“사람이 이 경험(부활)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일은 없다.” 사람들이 받는 부활된 몸의 본질은 그들이 지상 생활에서 지킨 율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교성 88 : 20~32) 따라서 “더 좋은 부활도”있다(히브리서 11 : 35) 주님께서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및 별의 영광에 속한 몸이 각각 다르며 사람이 부활할 때에는 부활에서 그가 받은 몸의 본질과 부합되는 영광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해의 왕국에 율법을 완전히 지켜 생활한 사람들과 그 보다 못했던 사람들 간에는 차이가 있다. 사람이 해의 영광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므로써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계시곳에까지 이르기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지켜 생활하므로써만 가능하다. (교성 131 : 1~4; 132 : 28~33; 93 : 26~28; 130 : 20~21)

주일학교 페이지

유월절

헬렌 블레이크 스미스

교회의 회원이 된지는 어느새 반세기가 가까워 오지만 그동안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다루기 “힘들다”고 말할 하는 16, 17세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명을 받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훌륭한 교사훈련 지도서는 모두 “산 교육”을 강조하고 있었다.

반 학생들은 “우리는 파티를 원해요”하고 떠들며 성가시게 군다.

“공부에는 냉담한 이 반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공과를 활기있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파티의 형식이 주일 학교에서 용납될 수 있을까?”

미숙한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주님의 벉세지” 제 9 과를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유월절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에 우리들만의 “유월절” 행사를 가지므로써 학생들에게 책임을 주어 서로 협력하여 일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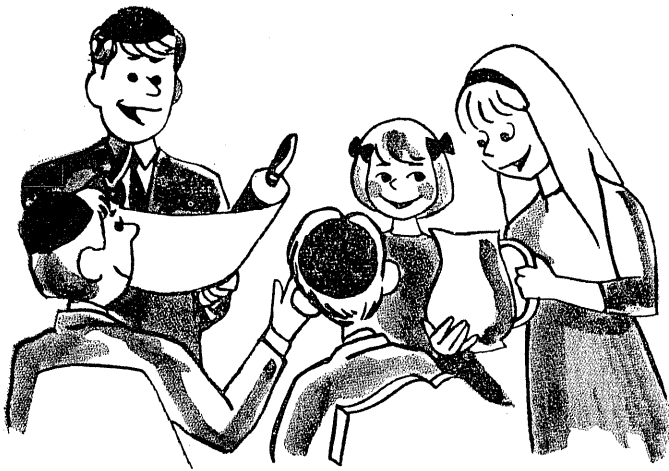
마침 유월절이 임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명절 형식의 행사가 반 학생들과 내가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 같았다.

다음주 내가 처음 제안한 것에 반 학생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나의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학생들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그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는 내가 구상한, 성경식의 언어로 양 피지에 써서 두루마리 처럼 가느다란 막대기에 말아서 밀짚으로 묶은 초청장도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반 역원들은 그 초청장을 내기로 동의하고, 우리는 비활동적인 회원들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월절 연구

성공적인 파티가 되기 위한 주요 요소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나 자신이 직접 그 일의 주도자가 되어야 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주요





Dale Kilbourn.

자료는 도서관과 몇몇 유대인 친구들에게서 구했다. 나는 유대 신앙의 세 가지 형식에 유래한 여러가지 관습을 종합하여, 약간 변형된 형식이기는 했지만 원래의 성격을 살리는 정도로 계획을 짤 수 있었다.

이렇게 고대의 축제를 연구하는 도중 나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과 선한 생활의 바탕은 가정과 가족들간에 있다는 그들의 믿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세이다(엄밀히 말하면 “의식의 절차”를 뜻한다)는 유월절 저녁에 집행되었으며 팔일 간의 축제 중에서 최고에 달했을 때에 이루어 진다는 것도 알았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주일 동안에 사용할 접시를 꺼내어 씻고 닭고 운을 냈다. 밝고 깨끗하게 청소된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가장이나, 가족 중 가장 연로한 남자 어른의 인도하에 옛날식으로 함께 모여 식사 할 때 더욱 행복한 분위기가 되었다.

유월절 정신으로 가득차다

우리반 반장의 어머니에게 약 28명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녀의 오락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나 자신이 그 행사의 분위기에 끌려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앞으로 우리의 호스테스가 되어 일해주실 분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 그녀의 식당과 그녀의 가장 좋은 식탁보, 도자기 및 식기를 사용하게 하시고 침착하게 일할 준비를 하고 제쳤다.

만찬회 날이 가까워오자 나는 반원 여러명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였다.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이것을 수락했고 그리하여 일은 잘 진행되었다.

유월절

반원들은 우리 집으로 모였으며 우리집 문설주에는 “양의 피”를 상징하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반장은 축복사, 다시 말해서 반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기로 되어 있었다.

남자 회원들이 모두 크레프 페이퍼(주름진 종이)로 만든 야마카스(골무 모양의 실내모)를 쓴 다음 반장이 성구를 읽었다. (그 모자는 보호 혹은 하나님의 가호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자 회원들은, 의식에 손을 씻고 참여할 수 있도록 푸른 물 주전자와 좋은 내프킨을 돌렸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도망칠 태세로 서서 “쓴 풀”을 먹었다.

그 다음 우리들은 호스테스의 집으로 모여서 중앙에는 일곱 가지가 달린 전통적인 장식용 촛대를 세워놓고 아름답게 차려놓은 식탁에 앉았다. 이 가족들의 앞자리에는 유월절의 상징물 즉 희생된 양을 표시하기 위해 구운 양뼈와 삶과 희망을 상징하는 구운 달걀과, 권리를 상실한 슬픔을 상징하기 위한 쓴 풀 대신 매운 냉이 뿌리와 파세리 그리고 사과와 전과와 술이 놓일 큰 쟁반이 놓여 있었다. (우리들은 술 대신에 포도즙을 사용했으며 그 포도즙의 붉은 빛은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강제로 구어냈던 벽돌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축복사”는 식탁 앞에서 그 의식을 인도하고 있었으며 손님으로 참석했고 남자 중에서는 가장 나이 어린 나의 아들이 전통적인 “네가지 질문”을 했으며, 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속박의 집에서 풀려났던 옛날 얘기가 풀려나왔다.

모세의 오경에

“장래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이냐 하거

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찌……”(출애굽기 13 : 14)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주인이 가족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유덕한 부인에 관한 솔로몬의 말씀인 히브리 말로 된 감사의 기도문을 읽었다. 이는 역시 히브리 말로 된 음식 축복문을 읽은 다음에 행해졌다.

우리들은 성스러운 의식을 재연하여 그 의식에 대한 큰 존경심이 생기게 되었으며, 흥겨움과 순수한 기쁨이 저해 받지 않았다. 내가 의식을 낱낱이 설명하고 있을 때 이 젊은이들의 얼굴에는 놀라운 관심의 빛이 떠올랐으며 이것을 보는 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빛나는 그들의 두 눈은 이 행사가 좀 특이한 파티였으며 사실을 체험하므로써 배우는 것이 흥겨움다는 것을 언어 이상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들은 빌려온 천연색 영화를 통하여 성지를 순례했으며, 우리들이 전시간에 토론했으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기적을 행하고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던 잘 알려진 곳을 찾아갔다. 그런 다음 예루살렘의 좁고, 험한

길을 통하여 갈보리에까지 이르는 쓰고 단 여행길에 올랐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의 유월절 행사는 끝이 났다. 나는 우리들의 초대된 손님을 위시하여 모든 소년 소녀들이 고대 이스라엘 축제에서 생생한 일면을 배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젊은이들은 그 행사가 “실속없는 생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믿었으나 모두들 우리가 먹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본 의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져 하는 열의를 보였다.

다음 주일에 그들이 보인 행동은 내가 알 필요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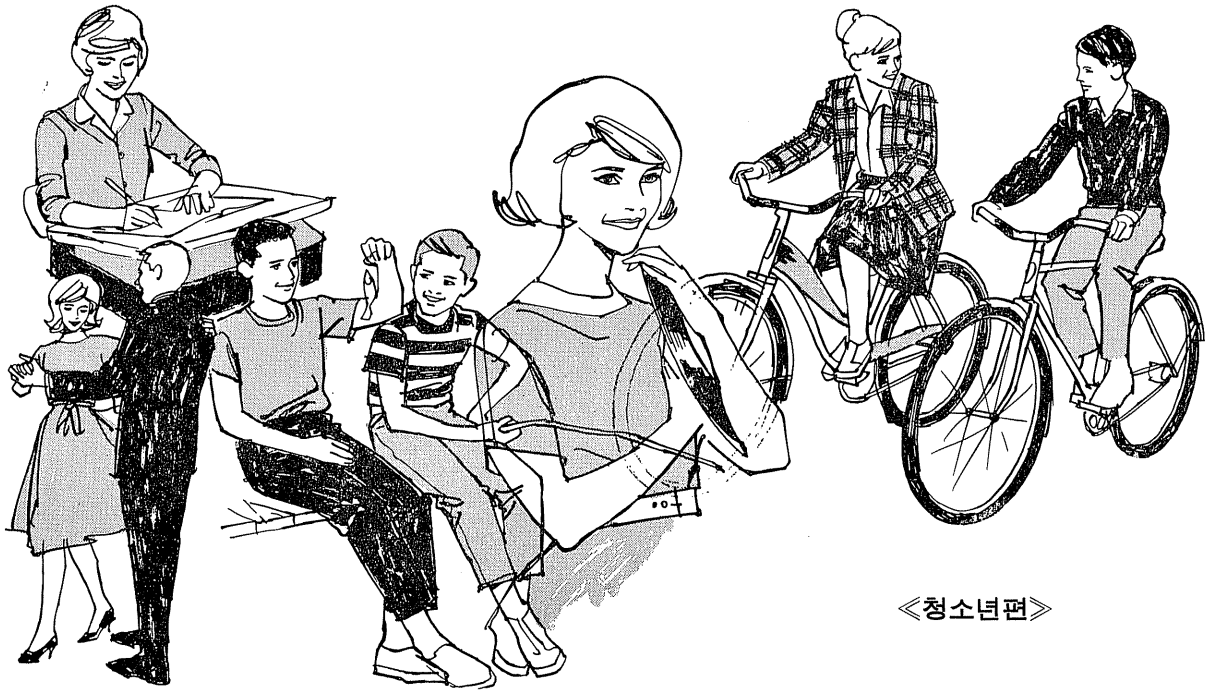
첫째 우리반 학생들의 의사소통 방법이 전에는 형식적이고 과장된 것이었는데 그날 아침 그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며 “안녕”하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둘째로 나는 “그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 계셨을 때 행했던 풍습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공과를 시작할 때 학생들의 주의를 더욱 많이 집중시켰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나는 “목적은 달성했다”는 것을 느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신앙 개조(信仰個條)

1.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2.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으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함을 믿는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므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4.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安手禮)임을 믿는다.
5.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자에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6.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 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는다.
7. 우리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계시와 시현(示現)을 받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및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등을 믿는다.
8.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한 물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9.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 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실 나라에관하여 많은 위대하고 중대한 것들을 계시 하실 것을 믿는다.
10.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지파가 회복 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 대륙(아메리카)에 시온이 건설되며,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지상을 다스리시고 땅은 새로워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11. 우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데로 어테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 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
12.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
13.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르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 던지 유덕하고, 사랑 할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 할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요셉 스미스



《청소년편》

노소를 막론하고 요셉·스미스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어린 시절의 용기라든가, 청년시절의 신앙,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가족에게 보여준 커다란 사랑등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감흥

이반 제이 바렛

요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은 “누구든지 요셉 스미스의 어린 시절을 관찰해 보면 아름다운 감흥을 받을 것이며 그의 어린 시절의 친진난만함과 단순성이 자기의 마음을 끌것”^①이라고 말했다.

요셉 스미스의 어린 시절은 그 당시의 다른 아이들과 같아서, 노는 것도 비슷했고 생각이 친진스러웠다.

부모들은 비록 “가난은 했지만, 정직하고 착했다. 그들은 진리안에서 기뻐했으며, 그안에서 최선의 길을 따라 생활하는 것만이 그들의 참된 희망이었다. 모든 것에 대한 사랑과 선한 의지는 그들의 마음과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이런 느낌으로 가득 했

다. 그들은 하나님을 확고히 믿었으며, 주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들은 꿈, 시현 및 영감으로 사랑에 넘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종종 보았으며,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렬한 간구에 응답하사 사경에 이른 어린 자녀의 병을 낫게 해 주신 적도 있었다”.^②

스미스 가정에서의 기도는 매일의 일과였다. 아버지 되시는 스미스가 조끼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려 할 때면 어린이들은 기도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들은 저녁에 기도가 끝난 다음 “또 하루가 지나고”라는 노래를 불렀다.

註 ①②③ 조셉 에프스미스 저, 복음교리 488페이지

공부하고 일하던 어린 시절

요셉과 그의 형제 자매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교육을 받았다. 그 이웃에 살던 어떤 사람이, 스미스 가족에 대하여 그들은 집을 교실로 삼아 성경을 공부했다”고 말했다. 비록 요셉이 받은 교육이 얼마되지 않는 것이나 그는 뉴 햄프셔주의 버몬트와 뉴욕주의 팔마이라에서 학교를 다녔다.

요셉 스미스는 검소한 집안에서 양친을 농부로 모시고 태어났다. 그들은 세상적인 물질에는 빈곤했으나, 영적으로는 풍부했다. 요셉은 그의 기록에서 “아버지의 생활에 여유가 없었으므로 우리들은 손수 일해야 했고 그 밖에 기회있는 대로 날마다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밖에서, 끊임없는 노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편안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요셉은 부유한 농부인 말틴 해리스 밑에서 일한 적도 있었는데, 그는 그 당시의 최고 임금인 일당 50센트를 그에게 주었다. 그는 요셉이 자기가 고용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농사꾼이었다고 말했다.

“가족중에서 가장 고귀한 자”

요셉이 자라 십대로 들어서면서 그는 제일 큰형인 알빈을 존경하고 거의 숭배하였다. 후에 요셉은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는 우리들 형제 중에서 가장 나이 많고 고귀한 분이었으며 그는 이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한 분이었다. 그에게는 교활한 면이 없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흠없이 살았다. 태어났을 때부터 환락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공정하고 침착했으며, 결코 놀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일하면서 자기들 형제를 낳아주신 부모를 보살폈다. 그는 가장 침착한 분으로 손꼽혔다”.

알빈은 튼튼하고 멋이 있는 분이였다. 요셉은 성경에서 완전한 인간이라 기술한 아버지 아담과 그의 아들 셋을 제외하고는 알빈의 훌륭함을 능가할 자가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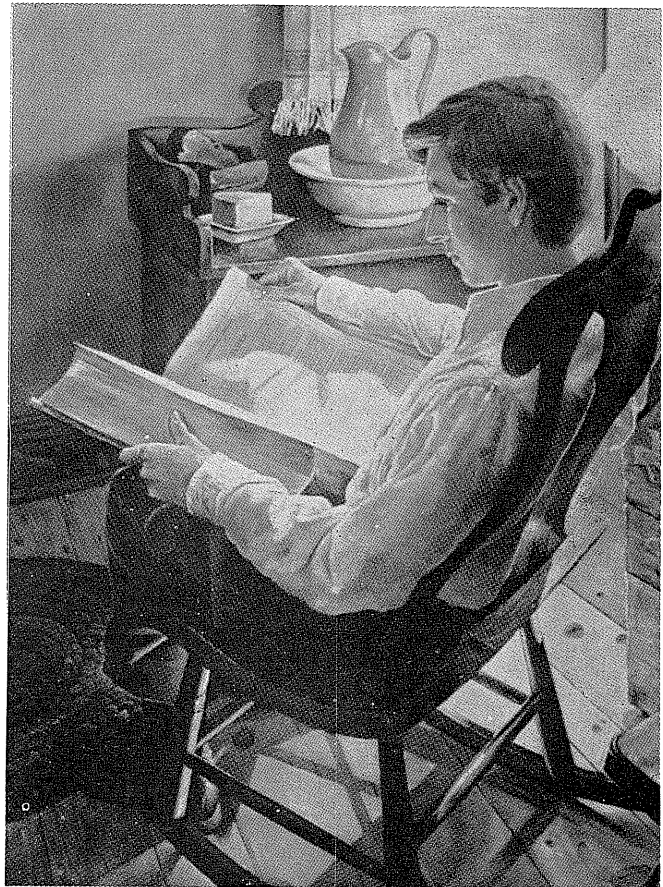
요셉과 그의 형 알빈이 팔마이라로 가던 어느날, 애란인 두명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면서 둥그렇게 서있는 한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다. 알빈과 요셉은 애란인 한 사람이 그의 적을 때려눕힌 후에, 막 그의 눈알을 빼내려 했다. 이것이 알빈의 의분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무리를 헤치고 달려들어서 가해자의 목덜미와 허리를 잡아서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둥그렇게 서 있는 돌레밖으로 던져 버렸다.

난로가에서의 저녁

모로나이 천사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요셉이 물론 경을 세상에 내놓도록 그에게 할 일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려준 후로 스미스가족들은 매일 저녁 난로앞에 뭉쳐서, 요셉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미주의 고대 주민들의 흥미있는 모습을 재현시켜 보며 즐거워했다.

그는 고대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 지내더라도 한 것처럼 그들의 의상, 여행 형태, 타고 다니는 동물의 모습, 도시, 전쟁 방식 및 종교 의식등을 설명했다. 가족과 함께 요셉의 흥미있는 이야기로 보낸, 첫날 저녁밤이 깊어지자 알빈은, “자, 이제는 잠자리에 들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지기 한 시간전에 우리의 일과를 끝내자. 어머니가 일찌감치 저녁을 지어 주신다면, 우리는 멋있고 긴 저녁을 갖게 될까다. 하나님께서 네게 보여 주신 위대한 일들을 들으면서 말이다.”라고 말했다.

어린 예언자가 모로나이 천사로부터 시현을 받은지 약 두달 후에, 알빈은 담즙질의 배앓이를 앓게 되었고, 마을 의사들의 왕진을 받았으나, 그는 죽고 말았다. 그는 죽기 전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언을 했으며 요셉에게는, “나는 네가 착한 소년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록



을 받기위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라. 가르침을 받고, 네게 주어진 모든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라. 너의 형 알빈은 너를 떠나야 하지만, 너에게 보여준 모범을 기억하고, 어린 동생들에게 같은 모범을 보이도록 해라. 언제나 어머니, 아버지께 순종하거라.”고 말했다.

요셉은 그의 큰형이 죽었을 때 어린 마음에 사무쳤던 쓰라린 슬픔으로 어린 가슴이 터지는 듯 했었다는 것을 늘 잊지 못했다. 알빈은,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주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것이다.

요셉은 정의를 믿다

요셉은 체구가 컸고, 푸른 눈과 황갈색 머리의 소년이었다. 나이가 어려서도 생각이 깊고, 결단력이 있고, 상냥하고, 사랑스런 기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격의 바탕이 되는 순종, 인내, 참을 성, 용기 등을 소유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는 결코 어느 누구와도 싸우려 하지 않았으나 약자나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설이나 부당한 처사가 가해질 때는 언제나 그들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소년 시절에 한 번은 어떤 남자가 그의 아내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의분이 타올라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그후 37살이 되어, 그는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자기 부인을 때리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 부인을 때리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어려운 싸움이였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그만하랄 때까지 그를 때려주었다”고 말하였다.

“구원 받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요셉 스미스는, 이 세상의 학문에 관한 것은 별로 배우지 못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따라서 어떤 인간이나 어떤 인간의 단체도 그보다 더 큰 예지를 갖춘 자가 없었다. 요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한 이후 이 세상에 일어났던 사건중 가장 큰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강림하여 요셉 스미스라는 소년에게 나타나신 것이다.”고 하였다. 그의 집에서 받았던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해서, 그는 자기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깊이 인식했다. 그는 14살때에 “구원 받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교리가 내게 구원을 줄 것인가?”라는 문제를 거듭 숙고하게 되었다. 그는 마을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성경을

읽고 그의 문제 해답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었던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그는 이 약속을 시험해 보았다.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읽은 다음날 아침, 전에 어머니가 때시던 난로의 뿔감을 잘랐던 조그만 숲속으로 들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그는 영광스런 시현을 받았다.

“……나는 내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르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 2:16, 17)

바울과 같이

이 놀라운 말씀은, 노소를 막론하고, 듣는 모든 사람을 감동케 하였다. 여러해 뒤, 1834년에, 미시간주 폰티악에 사는 에드워드 스티븐슨이라는 13살난 소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손을 들고,

“나는 1820년 봄에 고요한 숲속에서 기도하고 있을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언하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

이 13살난 소년은 낮을 읽고 앉아있다가 다음과 같이 외쳤다.

“아, 이 말씀은 얼마나 내 몸을 떨게 했으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차게 했으며, 옛날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앞에서 했던 것처럼 굳은 간증을 갖게 했는가③”

소년, 소녀들은 이 영광스런 첫번 시현을 통해서 앞날의 지침이 되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열망은 하늘을 열어 영감을 받을 수 있고, 진실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진리를 받았을 때는 그에 반대하는 나쁜 것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고하여 기꺼이 대가를 치루고, 의로운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물리칠 힘과 권능을 축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한다.



상 호 향 상 회 의 정 신 과 역 사

【1967년~1968년 상호향상회 주제봉독】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0편 21절~22절)

청녀 상호향상회는 1869년 11월 28일에 부리감 영 대관장에 의하여 조직되었고, 1875년에 청남 상호향상회가 조직되어 그 뒤를 따랐다.

1869년 11월 28일에 가졌던, 정규적인 가정의 밤 모임 후에, 부리감 영 대관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나의 가족을 바라보며, 모범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서, 나는 나의 가족부터 먼저 질서, 절약, 근면과 자비의 습관을 증진시킬 단체를 조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옷이나, 먹는데서나 혹은 말하는데서라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매님들은 이상 야릇한 옷을 입지 않고, 검소한 의복을 입도록 하며, 온화한 태도를 갖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모범을 세울 때가 왔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유행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 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유행을 정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복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만드십시오.”

“나는 시온의 젊은 여성들로 회를 조직할 것을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으며, 내가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원칙을 전달하고, 가르치며, 실행해서 교회의 나이 많은 회원들과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소녀들 스스로가 복음의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조직을 설립하려 하며 이 일에서 나의 가족이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참가하기 원하는 절제회를 조직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어리석고, 가벼운 말을 하거나 경솔한 사고를 하여 죄의식을 느껴오던 여러분의 의복이나, 식사나, 언행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가치없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향상시키십시오.”

부리감 영 대관장의 증손녀가 그의 할머니로부터 들은 재미있고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험담은 이렇다. 부리감 영대관장은 절제회의 조직을 주장하였다. 그의 딸 열명은 이제 막 데이트할 수 있는 연령에 달했었다. 멋진 청년 열명이 어떤 아름다운 일요일 저녁에 이들을 방문했다.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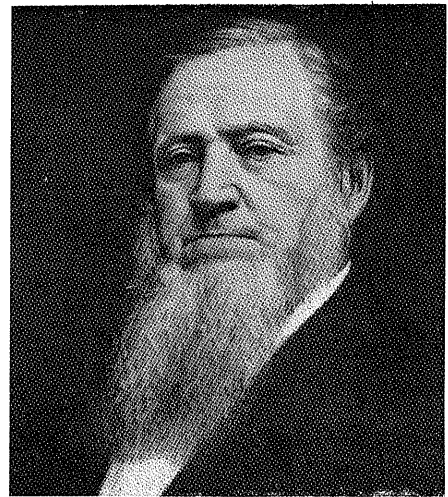
녀의 그림자가 어둡숙으로 스며들자, 한 소녀가 일어나서, 노래부르거나, 스크랩 북을 보거나, 성전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낭만적인 방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램프의 심지를 낮추었다. 갑자기 부리감 영 대관장이 라이온 저택 거실의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말끔한 청년의 모자 열개를 안고 서 있었다. 별일이 없이, 그는 청년들에게 가서, 그들의 모자를 나눠주며, 그들을 떠나게 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영대관장은 부드러운 어조로 딸들의 행동을 견책했다. 그들은 다시는 램프의 심지를 줄이는 일이 없게 되었다.

1875년에 부리감 영께서는 교회의 청년들에게 말씀하였다. “우리는 여러분의 상호 향상을 위해 스스로가 회를 조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업의 방침을 진리에 대한 각자의 간증과 말일의 대과업과 하나님의 사자에 의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전시키며, 지식을 배양하고, 생활내에서 많은 과학의 영원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청년들 간에 설립하도록 하십시오.”

숙녀 절제회의 명칭은 흔히 숙녀회로 줄여서 불리우게 되었다. 1875년에 청남 상호 향상회가 조직되자, 이 두 조직은 곧 상대조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숙녀 절제회의 명칭은 숙녀 상호 향상회로 바뀌게 되었다. 1924년 초에 숙녀 향상회조직의 명칭에 관한 문제가 총관리 역원회에 제기되어, “숙녀”라는 말을 “여성”이라는 말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 많은 신중한 사고와 배려가 있는 후에, 1934년 3월 28일에 그 명칭은 청녀 상호 향상회로 바뀌게 되었고, 1934년 5월에 교회 대관장단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효력을 보게 되었다.

청녀 향상회나 청남 상호향회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류의 조직으로는 특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모임이 조직적로서는 분리되었으나 목적은 동일하다. 청남 상호향회와 청녀 상호향회는 청년들의 영적인, 오락적인, 교육적인 필요를 보살피는 공동책임을 맡고 있으나, 두 조직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들은 부리감 영대관장께서 처음에 제창하신 근본 말씀을 수행해 갈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근면하게,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일했다. 1869년과 1875년 이래 수천, 수만의 청남, 청녀들이 이 조직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많은 대회에서 참석한 바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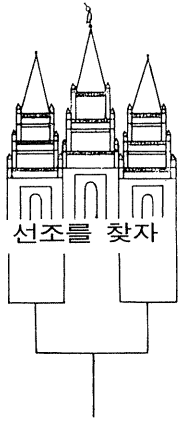
제 2대 대관장 부리감 영

상향회 집행위원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이니라”라는 상향회 모토를 자기네 나라 말로 옮겨 놓은 기와 그러한 구절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얼마나 감명을 주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향회의 색깔은 황금색과 초록색이다. 황금색은 힘, 명예, 권세와 청년들이 닿을 수 있는 영광스런 절정을 나타낸다. 초록색은 젊음,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

교회본부 청남 상향회 회장인, 유니우스 에푸 웰스 형제는 색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했다.

“젊은 시절은 인생의 봄철인 것이며, 봄날이란 언제나 찬란히 활기에 넘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황금색은 지식의 등불을 나타내며, 태양의 색깔인 것입니다. 초록색과 황금색은 상향회가 표방하는 색깔입니다. 그것은 젊음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권세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상향회의 목적이란, 이후에 그들의 예지의 꽃으로 만발한 사람들에게 권세와 영광이 차기까지, 빛에 빛을,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영옥에 있는 사람들도 풀리게 되리라

얼마전, 교회 총관리 위원들이 하신 설교문을 읽다가 십이사도회의 한분이신 매리넬 더블유. 메릴씨가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설교는 1895년에 행하신 것이다. 여기서 이를 가필하여 인용해 보겠다.

“저는 이 세상에서와 같이 저 세상에서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저 세상에 있는 우리의 친지들은 우리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은 지상의 여러 나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여 한 마을에서 한명 혹은 한 집안에서 두명씩의 적은 무리를 뭉아 교회로 인도합니다. 이들 중에는 그들의 세상을 떠난 친지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문제가 말일 성도라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만큼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전에서 여러해 동안 일해 오신 윌포드 우드럽 대판장님은 이 세상을 떠난 그의 친지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아마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할 일에 비하면 아주 적은양에 불과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일에 대하여 처음으로 계시를 받으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전도 사업의 후반에 이르러 성도들에게 이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성도들은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들의 죽은 친지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느꼈고, 또 이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시온성에서 구세주가 되는 것에 관하여, 예언자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온성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전을 세워 침례 받을 만들고 이 세상을 떠난 선조를 대신하며 나아가서 모든 의식, 침례, 확인, 씻음, 기름부음, 안수례와 우리 머리위에 인봉의 권능을 받음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여 첫째 부활에 나올 수 있게 할수 있을 것이며 그들과 함께 영광 보좌에 올리움을 받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려 저들이 한 우리안에 있어, 엘리야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언자께서는, ‘우리들 없이 그들은 완전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손들과 죽은 자들을 인봉할 인봉의 권능은 우리의 손에 쥐어져야 합니다. 예언자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사도들은 예언자께서 처음 시작한 신전 건립의 과업을 계속하여 요셉의 뜻을 이루었고, 신전 건립을 위해 말일성도들은 수많은 돈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말일 성도라면 주님의 신전이 세워지기 위한 목적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신전들을 세우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를 부인 하셨을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부인 하였을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당신의 부인을 당신에게 인봉하고 싶을 것이며, 부인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인봉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난 당신의 친지들을 위해서도 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금방 이 일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할 문제입니다. 얼마나 길런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이나, 저는 죽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특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는 한, 여러분은 이 시기와 기회가 과연 여러분 자신이 친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충분할 것인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머지않은 장래에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아마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일이 무엇인가를 물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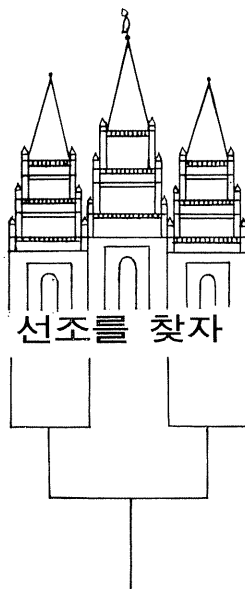
“그들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일을하셨습니까? 교회에는 이일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전 건립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아직도 신전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제게도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며, 그의 종들은 이에 관한 그분의 의도를 완수하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려, 주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친지와 친구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 세상에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 세상에서 이곳에서 보다는 더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선조의 계보를 찾는 데 아끼지 않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보가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 드리노니, 먼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한 계보 수집에 착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의식을 행하시고, 당신이 더 많은 기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어서 어느 때 보다는도 계보의 수집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족보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방향으로 인간을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이며, 만일 이에 대한 관심을 다소라도 표명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많은 기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얼마간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일은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손으로 이러한 일이 이룩되기를 바라고 계시며, 따라서 이를 소홀히 취급해서도 안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생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추천을 받지 못하여 신전에 들어갈 특권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 자신을 단련하고, 주님앞에 겸손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에게 요구된 이 과업을 수행하시라고 권고 드립니다. 여러분의 친지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회를 잃지마시고, 친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에 할 수 있는 것을 끝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지상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짧은 것이며, 몇 년이 못되어서 우리의 생은 끝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백년후에 이곳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 속에 끼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집에서 여러분의 친지들을 위해 대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도 빠짐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人間的 잠재 능력

선교부장 배 일 문



별빛이 찬란하던 어떤 밤 양치기 소년 다윗은 황홀한 밤하늘을 올려다 보다가 그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오묘함을 깨닫고 났을 잃고 서 있었다. 그 후 시편에서 그는 주를 이렇게 찬양한 바 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天使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시편 8 : 3~6)

비록 짧은 순간이었으나 양치기 소년은 赤裸裸한 人間的 모습을 본 것이다. 그는 人間的 존귀함에 대하여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결국 人間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세상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하나님과 특별한 유대를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 때문이었으며 사실 세상 만민은 진정한 뜻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말일성도들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인가? 勿論 우리는 우리의 子女에게 커다란 所望을 걸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家族과 親知에 대하여 관심과 신뢰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길에서 맞나는 낯선 사람, 연탄 인부, 도로 청소부, 下水道 짜는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이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대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지상에 存在하는 萬人의 內部에 감춰진 無限한 發展의 可能性의 가치를 認定하는 것일까?

씨. 에쓰. 루이스는 이렇게 記述하고 있다.

“이 世上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기분이 나쁘고 흥미없는 바로 그 사람이 어느 장래에 우리가 경배해야 할 사람임을 미리 알고 생활해야 한다면, 즉 신의 속성을 지닌 장래의 신의 무리로 구성된 이 社會에서 生活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人間은 죽어야 할 것과는 對話하지 않는다. 國家나 文化, 藝術 文明등은 죽어야 하는 유한의 것으로 이들의 生命은 우리의 그것 처럼 그저 모기 목숨같다고 할까……. 그러나 죽지 않는 不滅의 것과는 농담도 하고 함께 일하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푸대접하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는 것이다. 불사 불멸의 영원한 存在들…….”

회복된 福音은 人間에게 人間의 참모습을 가르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福音은 人間에게 승영에 이르는 知識을 갖게 해줄 하나의 목적을 위해 地上에 存在하는 것이다. 福音은 우리의 永遠한 運命을 이야기해 주며 우리의 안목을 높여 주며 세상의 속된 것에 집착된 人間의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려 준다. 그리하여 보다 새로운 하나의 가치관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人間의 內部에 감춰진 無限한 發展의 가능성——지금의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이야말로 人生事 가운데서 가장 경이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은 기아와 공포에서 보다는 道德의 或은 精神의인 것에서 더 큰 고통을 느낀다. 성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허탈감이다. 우리는 人間으로서의 우리의 참모습과 삶의 참 의의를 發見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편견이 없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하며 우리 스스로와 이웃에 대하여 보다 새로운 姿勢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우리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 나의 見解의 說明을 대신할까 한다. 우리 딸 제벳이 하루는 뭔가가 적힌 종이 쪽지를 들고 내게 와서 읽어달라고 한 일이 있었다. 딸아이는 온통 긴장해 있었고 말하는 목소리도 들떠 있었다. 내가 읽어준 그 종이 쪽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제벳은 귀여운 딸이랍니다. 그 뿐인가요, 아주 훌륭한 아이예요.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제 방 청소도 하구요, 머리도 혼자 빗고요, 옷도 혼자 입는답니다. 노래도 잘 하고 피아노도 잘 친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 학생이구요, 친구가 많아서 전화도 많이 받지요. 또 어떤 때는 친구들 집에 놀러도 갑니다. 밤에는 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딸을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벳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엄마가 이걸 써주셨는데 이게 모두 정말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렇구 말구. 모두 정말이지. 모두 정말이구 말구!”

그랬더니 딸 아이는 암말 없이 돌아서서 밖으로 뛰어 나갔다. 새로운 표정을 담고……. 그 뒤로 정말 놀라운 일이 실현되었다. 말하자면 명약(名藥)의 효를 거둔 것이다. 그 자그마한 하나님의 딸이 自己속에 묻힌 잠재능력을 새롭게 認識한 것이었다. 나는 마음으로 감사했다.

우리의 運命이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가? 왜 우리는 이곳, 이 지구에 왔을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돌보시는 걸까? 주는 이미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계시다.

“인간의 영생과 불사불멸을 가져움이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까” 라고.

빌립보 사람들을 가르치신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보면,
“너희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립보서 2 : 5~6)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의 運命이다. 또한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해의 영광의 율법에 순종하여 스스로를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며 아울러 사명인 것이다.

*

리차드 엘. 이반스

진리의 말씀

어느 것이 어려운 것인가?

천계에 퍼져있는 수많은 유성중의 어느 한 유성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경이로 가득차 있는 곳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씨를 뿌릴 시기와 결우 어드릴 시기가 있는가 하면 절기가 변합니다. 모든 것은 成長하고 또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나, 인간의 탐구하려는 마음, 배우고자하는 힘, 사랑, 신의 섭리의 계획에 대한 증거등.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입니까?

어떤 것을, 또는 누구를 제일 처음에 놓아야합니까? 도대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느 때였습니까?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 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누가 조직하여 제 자리를 지키게 하는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들은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기적은 있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첫번 꽃도 기적이요, 겨울의 동면에서 깨어나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도 기적입니다. 출생,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경건하고 장엄한 기적입니다. 거기에다 손을 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여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까지 갖게 되니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존재하여 사고하며, 배우며, 사랑한다는 사실이 모두가 기적이며 신비에 속하는 일입니다. 동물에게 본능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몸에 입은 상처가 스스로 나을 수 있는 힘을 준 분은 누굴까요? 서로 결합하고 분리하여 눈, 이, 머리카락을 만드는 두 가지의 세포 조직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자연적인 것입니까, 초자연적인 것입니까? 파스칼의 의문이 회상됩니다. “태어나는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어려운가?”^① 생명과 존재의 기적에 비하면 불멸의 그것은 보잘 것 없습니다. 이 곳에서의 삶을 허가하신 주 하나님은 영원한 삶도 주실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축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믿는 것 이상의 무엇 즉, 아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심하는 사람에게도, 무서움과 좌절에 떠는 사람에게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길을 걷기에 싫증을 느끼는 사람에게도 이점은 확실합니다. 구세주가 확신하신 바입니다. 그 분은 우리들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음에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용이 “내가 구속주가 사심을 아노니”라고 말한 것 처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사는 우리들은 마음에 항상 이 확신을 갖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안위를 맛보아야 하겠습니까.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예하 각 지부 주소

선교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전화 ㉓ 3995
중앙지방부		
청운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전화 ㉓ 3995
동부지부		
동대문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4의 19	전화 ㉑ 1005
삼청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전화 ㉒ 3596
서부지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 1	전화 ㉓ 1208
성북지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의 13	전화 ㉑ 0744
신촌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7의 13	전화 ㉑ 4279
영등포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54의 15	
인천지역	인천시 답동 37번지 송도 중·고등학교 옆	전화 ㉒ 9852
대전지역	대전시 대흥동 440의 1	전화 ㉒ 6273
남부지방부		
대구지부	대구시 삼덕동 2가 24번지	전화 ㉒ 6659
부산지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번지	전화 ㉔ 7071
동구지부	부산시 동구 수정동 685의 10	
광주지부	광주시 충장로 4가 34번지	전화 ㉒ 2692
전주지역	전주시 경원동 1가 58번지	전화 2819

도서안내

일반용

- 물문경150원
- 물문경(가족표지)1,200원
- 물문이란100원
- 효과있는 가르침을 위한 제언 50원
- 찬송가 50원

주일학교용

- 그리스도의 생애.....100원
- 기이한 업적(상권)..... 50원
- 기이한 업적(하권)..... 50원
- 말일성도란100원
- 복음의 실천.....100원
-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100원
- 생활에서 본 회복된 교회의 원리150원
- 성전중의 지도자.....100원
- 주님의 멍세이지.....100원
- 주님의 멍세이지(교사 보조 교재).....100원
- 회복된 교회의 역사150원
- 이야기로 엮은 구약 성서.....150원

상향회용

- 강력한 지도력을 통한 인격 강화 20원
- 봉사 이삭줍기반 공과100원
- 상향회 역원 지도서 50원
- 상향회 선교부 지도서 50원
- 선택의 밤(봉이반 공과) 50원
- 장미반 공과.....150원
- 지도 원리..... 50원

신권회용

- 아론 신권회 지침서 20원
- 인간과 하나님.....100원
- 집사 고문 지도서150원
- 회복된 성교회.....100원

유년주일학교용

- 우리의 종교생활(상).....100원
- 우리의 종교생활(하).....100원
- 주안에서 자라남.....150원
- 복음안에서 자라는 어린이150원
- 어린이 찬송가.....100원

※ 도서는 선교부 판매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지부의 지부장에게 선금을 주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